



박형철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보건관리팀 원장·예방의학전문의

## 한센인에 진심인 사람들

### 칼라우파파와 다미안 신부<sup>1)</sup>

미국<sup>2)</sup> 칼라우파파 국립역사공원(Kalaupapa National Historical Park)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에게만 관광지로 유명한 하와이, 주도인 호놀룰루가 속한 오후후섬 옆에 몰로카이섬이 있다. 섬 외진 곳에 19세기 말 격리 정책에 따라 한센인을 수용한 칼라우파파라는 곳이 있다. ‘Molokai Leper Colony’로도 불리는데, 바깥쪽은 망망대해이고 반도 안쪽은 약 500m 높이의 수직 절벽에 둘러싸여 ‘자연이 만든 천연 요새’였다. 강한 바람과 강수량 부족 등 생활 여건은 매우 가혹했다. 정기 여객선이 없던 시절이었고 한센병<sup>3)</sup>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했던 그 시절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오지였다. 지금은 비행기나 뱃길로 접근할 수 있지만 당시 한센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곳이다.

격리는 1866년부터 시작됐다. 초기에는 마땅한 주거시설도 없이 바위틈이나 동굴, 오두막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1873년 다미안 신부가 들어와서 야 주택이나 교회 등을 짓고 진료와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몰로카이섬의 나환자 사제 : 다미안 신부 이야기」에 기술한 내용 일부를 보면 “...명백

히 결여된 것은 의사, 간호사, 의약품이었다. 나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하고...물이 부족하여 상처를 씻고 목욕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다. 몇몇 의사는 환자를 만지지 않고 붕대를 지팡이로 들어 올렸다...모든 접촉을 거부했다”고 나온다.

섬은 도움이 절실했다. 하지만 사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자원자가 없었다. 그때 섬에 들어가겠다고 나선 이가 바로 다미안 신부다. 그는 벨기에에서 태어났다. 말쑥꾸러기 다미안은 동물과 불우한 사람에게 친절했다. 이런 그가 하와이 선교사로 떠날 예정이던 형이 출발 직전 발진티푸스에 걸리자 그를 대신해 나선 것이다. 나환자 격리지구 몰로카이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떠나기 전 “나환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 “나환자가 준비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등의 지침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나환자가 건넌 과일을 받았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으며, 직접 붕대를 갈아주었다.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환자의 고해 때 코를 막는 등 인간적 면모도 보였지만 교회를 개선해나갔다. 교회 주변은 묘지로 내주고 신부는 장례식을 주재했다. 그는 가혹한 육체노동으로 베이고 찢리고 굶餓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크게 증대됐다는 미국의학협회지 보고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한센병은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미안 신부는 오랜 시간 환자들과 섞여 살면서 자신의 운명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건물을 짓고 친구를 돌보고 아이들과 인형을 조각하며 살았다. 호놀룰루로 오라는 주교에게 한센병에 걸려 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나환자 격리지구 모두를 위해 탄원할 것이다”란 말을 남긴 채 1889년 49번째 생일 직후 세상을 떠났다. 추모 동상에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인간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80년 카터 대통령은 한센수용소를 보존하기 위해 칼라우파파를 국립역사공원으로 지정했다. 2009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다미안 신부를 시성(諡聖)했다.

## M치료실과 두 할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숨 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낮선 친구 만나면//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sup>4)</sup>...”



© (주)마리안드와 마가렛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지금은 연륙교가 있어 접근이 쉽지만,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가도 6시간 남짓 걸린다. 그러니 1950~60년대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을 게다. 그곳에 M치료실이 있었다. 처음에는 학령기에 발병해 소록도에 입원한 아동 환자를 위한 ‘아동치료실’이었다가 점점 일반 환자 쪽으로 대상이 바뀌었다. 지금은 아쉽게도 몇 차례 개축하면서 흔적이 사라졌지만 과거 병원 본관에 위치해 있었다. 서너 평 정도의 면적에 진한 손때 묻은 우유통, 사용했던 가운과 드레싱 세트, 헐거워진 캐비닛 등이 그대로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고, 활동 상황을

- 1)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제니퍼 라이트 저, 2021) 등에서 발췌 정리
- 2) 1900년대 전후 미국은 두 군데 한센병요양소를 설립 운영했다. 하와이 칼라우파파와 루이지애나주 카빌이다. ‘Louisiana Leper Home’은 1894년 한센병 환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인 1996년 ‘카빌 역사 지구 의료와 문화유물 보존 및 한센병의 이해와 공감, 치료 증진’을 목적으로 국립한센병박물관(The National Hansen’s Disease Museum)으로 변경했다. 남아 있는 소수의 환자는 루이지애나 주도인 배턴루지 한센병센터로 옮기거나 평생의료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실험연구시설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수의과대학으로 옮겨졌다(www.hrsa.gov/hansens-disease/history).
- 3) 만성 감염병인 한센병은 나균에 의하여 발병되어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 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을 말한다(질병관리청).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편견 해소 차원으로 ‘나병’ 대신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센병 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센인’이라 지칭하고 있다. 질병명에 사람 ‘인(人)’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오랜 사용으로 고착됐다. 의학용어라기보다 사회 복지적 용어로 한센인들도 그렇게 불러주길 원한다. 학술용어나 학회 이름 표기 등에 나병(Leprosy)을 쓰기도 한다. 저자 제니퍼 라이트는 나병이라는 용어를 고집한다. 나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의사 한센(1841~1912)의 나균 발견 공로를 인정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한 여성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완전히 진행된 나병을 감염시켰다’는 과오를 이유로 한센병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한다.
- 4) 詩 전라도길(한하운)에서 발췌



엿볼 수 있는 사진들만 이곳을 지키고 있다. 영아원 시절, 다미안재단 시절 등 ‘마리안느·마가렛 사랑의 발자취 43년’이란 제목과 함께 걸려 있다<sup>5)</sup>.

마리안느 간호사는 1962년 2월 24일 소록도에 왔다. 1966년 정부와 벨기에 자선단체 다미안재단이 구라사업(救癩事業)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소록도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물리치료실과 입원실을 마련, 정형수술 등으로 환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1971년 다미안재단이 본국으로 철수한 후에도 마리안느 간호사는 소록도에 남아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하며 음성환자 자활정착사업에도 기여했다. 병원시설 개선 확충, 의약품과 위생용품 지원 주선 등 이분들의 활약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sup>6)</sup>.



‘큰 할매’, ‘작은 할매’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렛.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두 사람은 한센병 환자의 자녀를 돌볼 봉사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소록도에 들어왔다. 국내 의료인조차 한센병 환자와 접촉을 꺼리던 당시, 이들은 환자들의 피고름이며 적출물이 얼굴과 몸에 튀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한센병 관련 편견을 없애고 한센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타국 땅 오지에서 사랑과 봉사로 한센인을 돌보았던 것이다.

5) <멈춰진 달력, 흐르는 사랑>(Healthy Circle, 2013, Vol 7)

6) 국립소록도병원 100년사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2017)



© (세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런데 두 할매는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홀연히 섬을 떠났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 친구들에게 가끔 저희가 충고하는 말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자신이 있는 곳에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편지 부분 발췌)”는 내용이였다. 두 사람 역시 그 ‘때’를 마주하자 바로 실천한 것이다. 그들이 떠나고도 오랫동안 M치료실에는 한국인 수녀 두 명이 남아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사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도 어느 날 조용히 소록도를 떠났고, 한동안 이곳은 자물쇠가 굳게 잠긴 채 주인 없는 빈방으로 남겨졌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로 몇 차례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앞둔 2016년 봄, 마리안느 할머니만 조용히 소록도를 찾았다. 환자들과 친구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과 섬을 둘러본 할머니는 지금 고향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진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박물관에 친필 고별편지를 전시해 관람객들이 할머니를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다행인 것은 병원에서 M치료실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M치료실이 꼭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 에필로그

소록도 중앙공원에 ‘세마공적비’라는 비석이 하나 있다. 전면에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이름이, 이면에는 “이역만리 한국 땅 소록도에 와서 영아원, 물리치료실, 입원실에 대한 환자 간호와 음성환자 정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에 그 업적을 찬양하고 길이 빛내기 위해 이곳에 공적비를 세우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평생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성품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은 소록도 한센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잡을 것이다.